

Bee pollen 섭취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1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박한정 · 김현아 · 허규영 · 예영민 · 서창희 남동호 · 박해심

화분은 고대로부터 민간요법제로 널리 복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미용, 영양, 치료의 용도로 일반인에게 시판되고 있다. 화분은 흔한 흡입성 항원으로서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흔히 일으키며, 드물게 경구 섭취 후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연구들은 잡초 화분에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화분과립(bee pollen) 섭취 후 심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54세 여자 환자는 양봉업을 하는 자로 과거력상 수 차례 벌에 쏘인 적이 있었으나 전신 반응은 없었고, 10년 전부터 봄, 가을에 악화되는 알레르기비염과 결막염의 증상이 있었다. 내원 당일 차수저 하나 분량의 화분 과립을 물에 타 마신 10분 후부터 몸통과 팔에 소양감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으며, 눈과 입주위의 혈관부종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측정된 혈압은 71/32 mmHg 였다. 화분과립의 복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에피네프린과 dexamethasone을 투여하였고, 이후 증상은 호전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환자가 복용한 화분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ragweed, mugwort pollen 외 다수의 수목 화분이 섞여 있었다. 이후 시행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상 mugwort, ragweed와 dandelion pollen에 각각 4+, 5+, 3+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immunoCAP 시스템으로 측정된 mugwort와 ragweed에 대한 특이 IgE 항체 검사상 각각 56.13 kU/L와 21.70 kU/L로 강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ragweed, mugwort pollen의 경구 섭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였다. 이후 환자에게 mugwort와 ragweed가 포함된 화분의 섭취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였고, 약물치료하면서 관찰중이다. Keywords: bee pollen, anaphylaxis

간담도암으로 오인된 개회충증에 의한 호산구성 간농양 1예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이진영 · 오미정 · 이병재 · 최동철

배경 : 개회충은 호산구증가증의 흔한 원인이나 상용화된 검사 방법이 보급되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침범 특히 폐, 간 등을 침범할 경우 암으로 오인될 수 있다. **중례** : 우연히 발견된 간농양으로 정기적인 경과 관찰 중 이던 53세 여자환자가 새로 발견된 간의 단일 종괴를 주스로 내원하였다. 복부 CT 상 동맥기에서 주변부 조영증강을 보이며 지연영상에서 조영된 주변부가 washout 되는 간의 전상구역에 2 cm 크기의 종괴로 간담도암이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당시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8010/mm³ (호산구15.6%), 혈색소 12.9 g/dL, 혈소판 332000/mm³, HBsAg 음성, HBsAb 양성, anti-HCV 음성이었고 Alpha-fetoprotein 1.7 ng/ml, CEA 2.1 ng/ml, CA-19-9는 4.0 U/ml였다. 간종괴 조직검사상 간문맥주위로 비특이적인 염증조건만이 관찰되었다. 1달 뒤 추적한 복부 CT상 간의 전상구역의 저음영 병변은 사라지고 간의 후상구역에 동맥기 주변부 조영증강을 보이는 1.3 cm의 저음영 병변이 새로 생겼다. 과거력상 간천엽의 생식력이 있었으며 개회충 효소면역측정(Toxocara.canis에 대한 특이 IgG 항체검사, ELISA)상 양성 소견보여 개회충증에 의한 간침범으로 진단하였다. . **고찰** : 간에 발생하는 호산구성 간농양의 경우 대부분 다발성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저음영 병변으로 나타나지만 단일 종괴로 나타날 수 있다. 간담도암의 CT 소견은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주변부가 조영되는 저음영의 종괴로 보이며, 지연영상에서 조영된 주변부가 wash out되는 소견을 보여 호산구성 간농양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개회충증에 의한 호산구성 간농양의 경우 생식력이 있고, 경과 관찰시 이동성 병변을 보이며, 호산구수가 정상화됨에 따라 간 침윤도 좋아지므로 암과 감별이 어려울 경우, 개회충 효소면역측정 및 단기간의 영상이미지 추적이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